

2020년 6월 10일 | Equity Research

지놈앤컴퍼니 (314130)



본 분석보고서는 거래소 코넥스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KONEX Research Project)에 선정되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2020년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는 한해!

차별화된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 부각 중

지놈앤컴퍼니는 2020년 4월 미국 FDA로부터 자사 면역항암 치료제 'GEN-001'과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화이자사의 '아벨루맵' 병용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탐색적 효능을 포함하는 단계로 사실상 2a 임상 단계이며 기존 anti-PD-L1 또는 anti-PD1 치료를 받은 후 진행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GEN-001과 아벨루맵의 병용투여시의 안전성, 내약성 및 잠재적 유효성을 확인한다. 아시아권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사가 글로벌 제약사와 최초로 체결한 병용임상 계약인 만큼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LG화학에게 GEN-001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를 한다. 현재도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 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국내에서는 지놈앤컴퍼니가 시장을 이끌며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

단기간 내 수익화가 용이한 화장품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

지놈앤컴퍼니는 의약품 외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올해 하반기 소재를 활용한 자체 화장품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수익화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약품 대비 화장품은 단기간 내 현금흐름 창출이 용이한 만큼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화장품이 경쟁우위에 있는 점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 분석을 통해 분리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용혈테스트, 자극실험 등의 안전성을 통과한 균주이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피부상재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외부물질을 사용해 피부상태를 개선하는 제품들에 비해 우수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여드름/피부진정 관련 화장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장품 부문의 사업모델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ONEX Brief

Not Rated

CP(6월 9일): 32,000원

Key Data

시가총액	2,694억원
발행주식수	10,860,340주
액면가	500원
자본금	45억원
52주 최고가	51,100원
52주 최저가	29,300원
코넥스 상장일	2018.12.26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십억원	0.0	0.0	0.0	0.0	0.0
영업이익	십억원	0.0	(0.9)	(2.5)	(5.9)	(13.0)
세전이익	십억원	0.0	(0.9)	(2.5)	(5.8)	(84.6)
순이익	십억원	0.0	(0.9)	(2.5)	(5.8)	(84.6)
EPS	원	0	(185)	(362)	(637)	(8,170)
증감률	%	N/A	N/A	적지	적지	적지
PER	배	N/A	N/A	N/A	N/A	N/A
PBR	배	N/A	N/A	N/A	10.45	N/A
EV/EBITDA	배	N/A	N/A	N/A	N/A	N/A
ROE	%	N/A	(34.83)	(65.03)	(80.66)	616.40
BPS	원	0	738	374	1,177	(3,617)
DPS	원	0	0	0	0	0



Analyst 이정기

02-3771-7522
robert.lee@hanafn.com



Analyst 안주원

02-3771-3125
joowonahn@hanafn.com

RA 정민구

02-3771-3429
mingu.jeong@hanafn.com

RA 윤문수

02-3771-3429
mingu.jeong@hanafn.com

다양한 균주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약물 후보물질 도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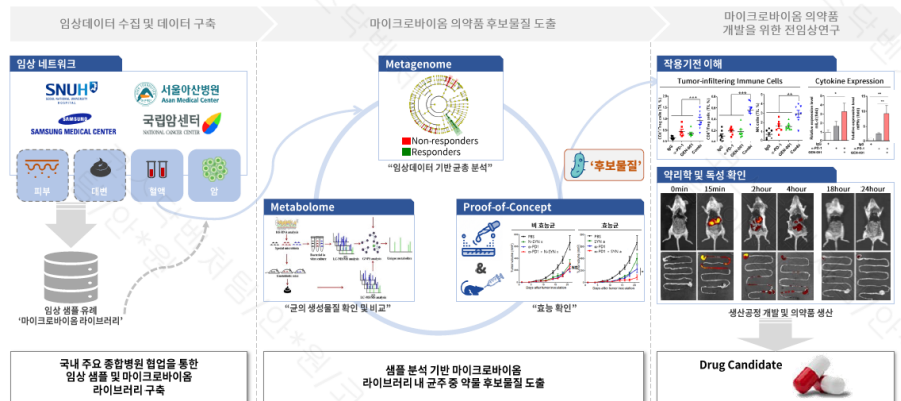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외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가능

지놈앤컴퍼니는 국내 주요 종합병원 협업을 통해 임상 샘플 및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차이를 분석하고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균주를 해당 질환의 잠재적인 치료 균주로 예상하고 의약품 후보 물질로 도출한다. 현재 약 8,000개의 임상 샘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자사 개발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GEN-001’과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맵) 병용요법 1/1b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금번 임상은 아시아 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기업 중 처음으로 병용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이다.

지놈앤컴퍼니는 향후 모든 면역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사업을 확장하고 의약품 외에도 ‘코스메슈티컬 + 건강기능식품’ 및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분석 및 탐색 사업으로 넓혀나갈 예정인 만큼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지놈앤컴퍼니 핵심기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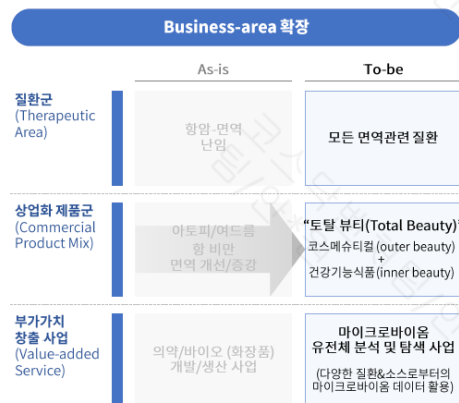
다양한 균주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약물 후보물질 도출



자료: 지놈앤컴퍼니,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지놈앤컴퍼니 사업영역 확장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중



자료: 지놈앤컴퍼니, 하나금융투자

GEN-001: 미국 FDA로부터 병용요법 임상시험 승인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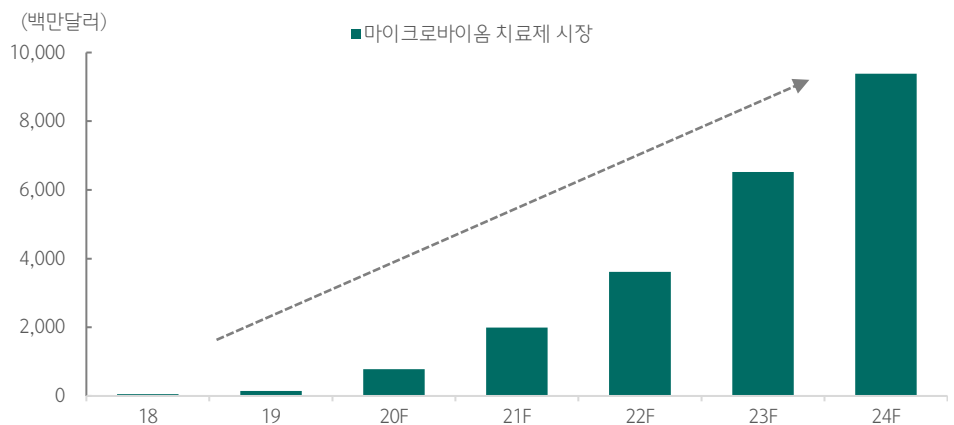
미국 임상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내 임상도 진행할 예정

지놈앤컴퍼니는 2020년 4월 미국 FDA로부터 자사 면역항암 치료제 'GEN-001'과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화이자의 '아벨루맵' 병용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탐색적 효능을 포함하는 단계로 사실상 2a 임상 단계이며 기존 anti-PD-L1 또는 anti-PD1 치료를 받은 후 진행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GEN-001과 아벨루맵의 병용투여시의 안전성, 내약성 및 잠재적 유효성을 확인한다. 지놈앤컴퍼니가 임상시험의 스폰서로서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머크/화이자는 병용 임상에 투입되는 약물을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사가 글로벌 제약사와 최초로 체결한 병용임상 계약인 만큼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이미 지놈앤컴퍼니는 동물실험에서 'GEN-001'과 면역항암제인 anti-PD1 혹은 anti-PD-L1, 화학항암제인 Oxaliplatin을 병용 투여한 실험에서 'GEN-001'을 지속적으로 경구 투여한 그룹이 음성 대조군보다 종양의 성장 속도가 ~60% 까지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미국에서의 임상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국내 임상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임상시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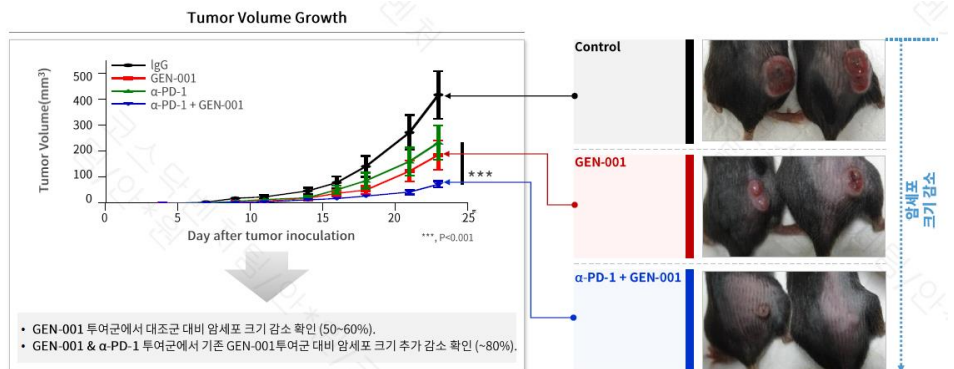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음



자료: BCC Research, 하나금융투자

그림 4. GEN-001 전임상 시험을 통한 항암효과

동물실험에서 병용 투여를 통해 암세포 크기 감소 확인



자료: 지놈앤컴퍼니, 하나금융투자

지놈앤컴퍼니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건강식품 사업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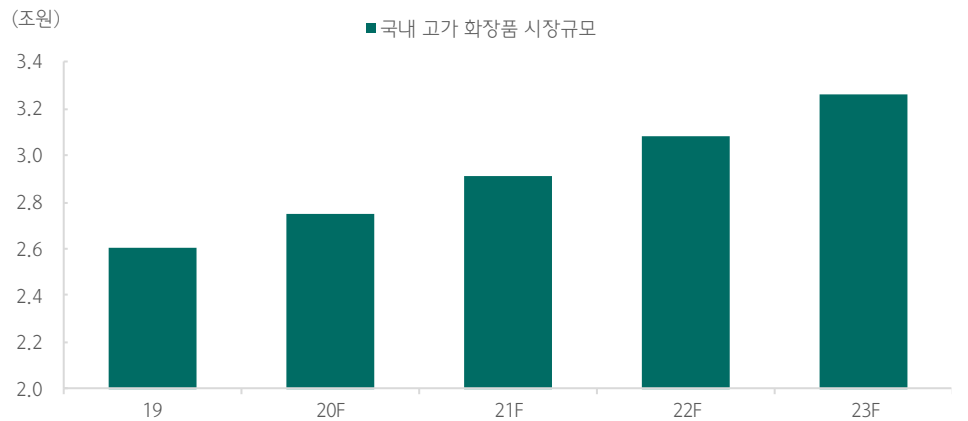
국내 시장은 화장품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부각 중

국내 시장에서는 2018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은 안전성이 높아 뷰티, 건강제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도 2020년부터 화장품업계 연구개발에 200~300억원 규모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세계 수준 대비 87%인 국내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로 높인다는 목표이다.

이에 발맞추어 지놈앤컴퍼니도 의약품 외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올해 하반기 소재를 활용한 자체 화장품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수익화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약품 대비 화장품은 단기간 내 현금흐름 창출이 용이한 만큼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화장품이 경쟁우위에 있는 점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 분석을 통해 분리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용혈테스트, 자극실험 등의 안전성을 통과한 균주이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피부상재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외부물질을 사용해 피부상태를 개선하는 제품들에 비해 우수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여드름/피부진정 관련 화장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장품 부문의 사업모델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한 제품 개발에 집중

그림 5. 국내 고가 화장품 시장 규모



자료: 각종 언론사, 하나금융투자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0.0	0.0	0.0	0.0	0.0
매출원가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0.0	0.0	0.0	0.0	0.0
판매비	0.0	0.9	2.5	5.9	13.1
영업이익	0.0	(0.9)	(2.5)	(5.9)	(13.0)
금융손익	0.0	0.0	0.0	0.1	(70.8)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0.0	0.0	(0.0)	0.0	(0.8)
세전이익	0.0	(0.9)	(2.5)	(5.8)	(84.6)
법인세	0.0	0.0	0.0	0.0	0.0
계속사업이익	0.0	(0.9)	(2.5)	(5.8)	(84.6)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0.0	(0.9)	(2.5)	(5.8)	(84.6)
비배주주지분 순이익	0.0	0.0	0.0	0.0	0.0
지배주주순이익	0.0	(0.9)	(2.5)	(5.8)	(84.6)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0.0	0.0	0.0	0.0	(84.6)
NOPAT	N/A	(0.9)	(2.5)	(5.9)	(13.0)
EBITDA	0.0	(0.9)	(2.4)	(5.7)	(12.5)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N/A	N/A	N/A	N/A	N/A
NOPAT증가율	N/A	N/A	적지	적지	적지
EBITDA증가율	N/A	N/A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증가율	N/A	N/A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N/A	N/A	적지	적지	적지
EPS증가율	N/A	N/A	적지	적지	적지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N/A	N/A	N/A	N/A	N/A
EBITDA이익률	N/A	N/A	N/A	N/A	N/A
영업이익률	N/A	N/A	N/A	N/A	N/A
계속사업이익률	N/A	N/A	N/A	N/A	N/A
투자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0	(185)	(362)	(637)	(8,170)
BPS	0	738	374	1,177	(3,617)
CFPS	0	(175)	(340)	(612)	(948)
EBITDAPS	0	(176)	(340)	(620)	(1,204)
SPS	0	0	0	0	4
DPS	0	0	0	0	0
주가지표(배)					
PER	N/A	N/A	N/A	N/A	N/A
PBR	N/A	N/A	N/A	10.4	N/A
PCFR	N/A	N/A	N/A	N/A	N/A
EV/EBITDA	N/A	N/A	N/A	N/A	N/A
PSR	N/A	N/A	N/A	26,999.3	8,883.6
재무비율(%)					
ROE	N/A	(34.8)	(65.0)	(80.7)	616.4
ROA	N/A	(34.7)	(62.8)	(74.4)	(353.3)
ROIC	N/A	(474.3)	(448.3)	(873.8)	(358.1)
부채비율	N/A	0.5	9.9	8.1	(189.5)
순부채비율	N/A	(92.8)	(71.4)	(95.6)	(117.9)
이자보상배율(배)	N/A	(28,320.3)	N/A	N/A	(6.2)

자료: 하나금융투자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0.0	4.9	2.0	11.7	31.4
금융자산	0.0	4.8	1.9	11.3	25.6
현금성자산	0.0	4.8	1.9	6.3	21.9
매출채권 등	0.0	0.0	0.0	0.2	0.3
재고자산	0.0	0.0	0.0	0.0	0.0
기타유동자산	0.0	0.1	0.1	0.2	5.5
비유동자산	0.0	0.3	0.9	1.1	3.7
투자자산	0.0	0.0	0.0	0.0	0.5
금융자산	0.0	0.0	0.0	0.0	0.5
유형자산	0.0	0.3	0.7	1.0	1.3
무형자산	0.0	0.0	0.0	0.0	0.3
기타비유동자산	0.0	0.0	0.2	0.1	1.6
자산총계	0.0	5.2	2.9	12.8	35.1
유동부채	0.0	0.0	0.3	0.9	67.3
금융부채	0.0	0.0	0.0	0.0	64.9
매입채무 등	0.0	0.0	0.2	0.8	1.3
기타유동부채	0.0	0.0	0.1	0.1	1.1
비유동부채	0.0	0.0	0.0	0.0	7.1
금융부채	0.0	0.0	0.0	0.0	7.0
기타비유동부채	0.0	0.0	0.0	0.0	0.1
부채총계	0.0	0.0	0.3	1.0	74.4
지배주주지분	0.0	5.2	2.6	11.8	(39.3)
자본금	0.0	0.9	1.8	5.0	4.5
자본잉여금	0.0	5.2	4.3	16.1	73.8
자본조정	0.0	0.0	0.0	0.0	2.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0.0	(0.9)	(3.5)	(9.3)	(120.5)
비배주주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0.0	5.2	2.6	11.8	(39.3)
순금융부채	0.0	(4.8)	(1.9)	(11.3)	46.3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0.0	(0.9)	(2.3)	(5.1)	(9.3)
당기순이익	0.0	(0.9)	(2.5)	(5.8)	(84.6)
조정	0.0	0.0	0.1	0.2	74.9
감가상각비	0.0	0.0	0.1	0.2	0.6
외환거래손익	0.0	0.0	0.0	0.0	0.0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8
기타	0.0	0.0	0.0	0.0	73.5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0.0	(0.0)	0.1	0.5	0.4
투자활동 현금흐름	0.0	(0.4)	(0.7)	(5.5)	(5.3)
투자자산감소(증가)	0.0	0.0	0.0	0.0	(0.5)
유형자산감소(증가)	0.0	(0.3)	(0.7)	(0.4)	(0.7)
기타	0.0	(0.1)	0.0	(5.1)	(4.1)
재무활동 현금흐름	0.0	6.0	(0.0)	15.0	30.2
금융부채증가(감소)	0.0	0.0	0.0	0.0	71.9
자본증가(감소)	0.0	6.1	(0.0)	15.0	57.2
기타재무활동	0.0	(0.1)	0.0	0.0	(98.9)
배당지급	0.0	0.0	0.0	0.0	0.0
현금의 증감	0.0	4.7	(2.9)	4.4	15.6
Unlevered CFO	0.0	(0.9)	(2.4)	(5.6)	(9.8)
Free Cash Flow	0.0	(1.2)	(2.9)	(5.5)	(10.0)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1.0%	9.0%	0.0%	100.0%

* 기준일: 2020년 6월 10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정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06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정기)는 2020년 06월 10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방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